도쿄 올림픽의 경제 효과

※ 이 자료는「野村総研「東京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中止の経済損失1兆8千億円、無観客開催では損失1,470億円」」(2021.05)」, 笹川スポーツ財団「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の延期開催に経済効果は期待できない」」(2021.01)」을 요약, 정리한 것임.

ㅇ 코로나의 영향으로 2020년 개최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1년

ㅇ 끝까지 개최에 대한 찬반이 논의가 됐지만, 개최를 찬성하는 이유로는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는 의견이 다수임

ㅇ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 관객 수용 불가 등 여러 제약조건에 의해 올림픽·패럴림픽 개최는 큰 경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올림픽·패럴림픽에 관한 경제효과 중 시설 정비비 등은 이미 이루어져있음

ㅇ 개최 여부 판단은, 경제손실보다는 감염 확대 리스크의 관점에서 판단을 내려야 함

- **과거 분석에 따르면 올림픽·패럴림픽 개최로 인해 감염이 확대되어 긴급사태 선언이 재발령될 경우, 올림픽 개최로 얻는 경제 효과를 상회하는 경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

□ 코로나의 영향으로 2020년 7~9월 개최 예정이던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1년 연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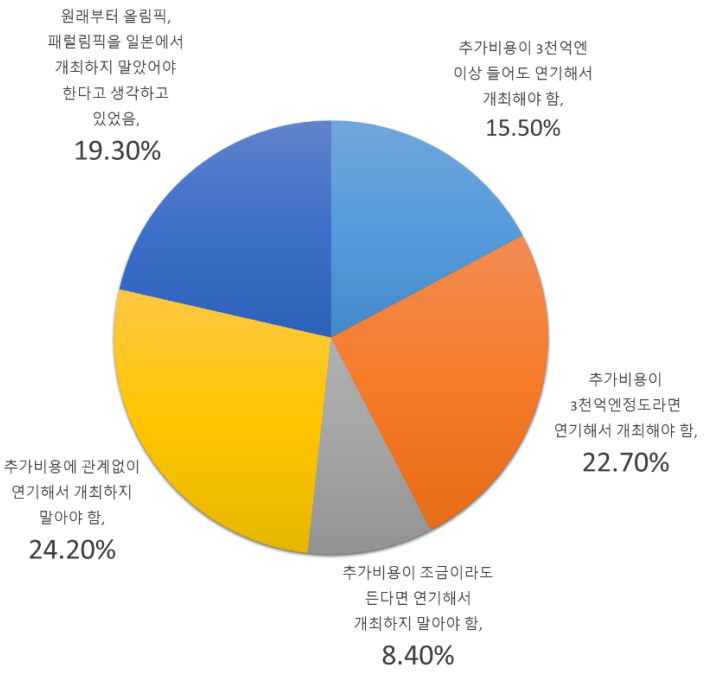
ㅇ 1년 연기에 드는 비용이 약 3천억엔이라고 하지만, 산업능률대학 스포츠 매니지먼트 연구소가 2020년 7월에 스포츠 팬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4.8%가 「현실적으로 내년(2021년)에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개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함

ㅇ 2020년 6월 노무라종합연구소가 오오사키기업스포츠사업 연구조성재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전국 2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비용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찬성이라는 의견을 포함하면 약 60%가 연기 개최에 찬성함

ㅇ 3천억엔 이상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도 연기 개최에 찬성하는 비율은 15.5%에 머물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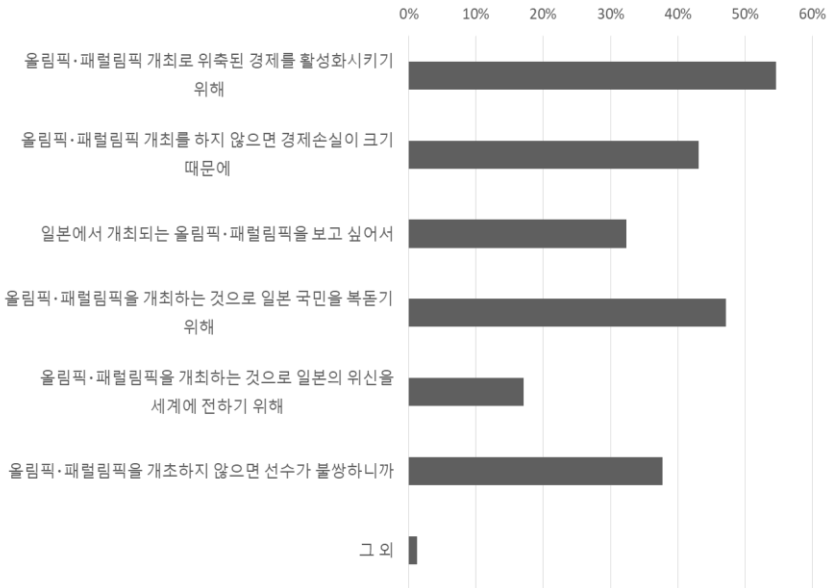
ㅇ 3천억엔 정도의 비용이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을 합하면 비용이 증가해도 개최에 적극적인 국민은 전체의 약 40%에 육박함

<그림1> 도쿄2020올림픽·패럴림픽 연기개최에 관한 의견 (n=2,060)



<출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중 스포츠에 관한 가치관 조사 설문 (2020년 6월 실시)>

<그림 2> 연기 개최에 찬성하는 이유 (n=786)



주: 도쿄 2020 올림픽·패럴림픽 연기개최에 대해 '3,000억엔 정도, 혹은 그 이상 비용이 들어도 연기해서 개최해야 함'이라 대답한 응답자에 대한 질문

<출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중 스포츠에 관한 가치관 조사 설문 (2020년 6월 실시)>

<표 1> 직접적 효과(2조엔)의 내역 (단위 : 억엔)

항목	내용	수요증가액
설비정비비	신규 항구적 시설 정비비 (도립 항구시설, 신국립경기장)	3,500
대회운영비	가설시설 정비비, 에너지 인프라, 소프트 경비 (운송, 경비, 기술, 운용, 관리·홍보, 그 외)	10,600
대회참가자, 관전자 소비지출	대회 참가자와 일반 관전자의 소비지출 (교통비, 숙박비, 식사비, 상품 구입비, 시설이용료 등	2,079
가계소비지출	대회 개최에 따라 판매되는 올림픽, 패럴림픽 관련 상품 매상, TV 구입비	2,910
국제영상제작, 전송비	올림픽, 패럴림픽 영상 제작, 전송에 드는 비용	335
기업 마케팅 활용비	스폰서 기업의 마케팅 활용비 (TV방송구입 등)	336
합계		19,790

<표 2> 레거시 기대 효과(12.2조엔)의 내역 (단위 : 억엔)

항목	내용	수요증가액
신규 항구시설, 선수촌 활용, 도쿄 마치즈쿠리(재개발), 환경·지속가능성	신규 항구적 시설, 선수촌 활용, 대회 관련 교통 인프라 정비, 배리어프리 대책, 수소사회 실현 등	22,572
스포츠, 도민참가·자원봉사, 문화, 교육·다양성	스포츠 참가자, 관전자 증가, 장애인 스포츠 진흥, 자원봉사자 증가, 문화 이벤트 관객 증가, 외국인 유학생 증가 등	8,159
경제 활성화·최첨단기술 활용	관광수요 확대, 국제 비즈니스 거점 형성, 중소기업 진흥, ITS·로봇 산업 확대 등	91,666
합계		122,397

주: 상기 수요증가액 (14.2조엔)의 간접 파급효과를 더한 경제 파급효과 (생산유발액) 을, 32조엔으로 시산하고 있음.
출전) 도쿄 2020대회 개최에 따른 경제파급효과 (2017년 4월, 도쿄도 올림픽·패럴림픽 준비국)

ㅇ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여러 제약조건 따르는 올림픽·패럴림픽 개최는 큰 경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올림픽·패럴림픽에 관한 경제효과는 상당부분 이미 이루어져있음

- 도쿄도는 2017년 4월 산출한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의 경제 파급 효과를 32조로 예측함

- 노무라 종합 연구소에 따르면, 대회참가자·관전자의 소비 지출 (2,079억엔) 중 해외 관광객이 차지하는 금액은 1,511억엔으로 약 70%에 육박함
- 대회 운영비(1조 600억엔), 국제 영상제작·송출비 (335억엔), 기업 마케팅 활용비 (366억엔) 은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당초 예측한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시설 정비비 (3,500억엔) 은 이미 지출이 끝난 상태임
- 12.2조엔에 달하는 레거시 기대 효과 중, 「관광 수요 확대」, 「국제 비즈니스 거점 형성」등은 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방일한 외국인을 통해 확대가 기대되는 부분이 크며, 관객, 관계자가 다수 참가하지 못 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대회가 개최되어도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ㅇ 대회 개최시 경제효과는 최대 1조8,108억엔

<표 3>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개최시 경제효과(국내 관객 완전 수용시) (단위 : 억엔)

대회 운영비	**12,070**
가설 등	3,870
에너지 인프라	970
운송	980
경비	890
기술	1,210
운영	1,930
관리·홍보	840
마케팅	1,360
그 외	**5,078**
티켓 판매	900
관전자 소비지출	568
관련 상품·TV구매 등	2,910
국제 영상 제작·송출비	335
기업 마케팅 활용비	365
코로나 대책	960
합계	**18,108**

출전) 도쿄도, 올림픽 조직위원회 자료를 참고로 노무라 종합연구소

<표 4>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개최에 관한 경제효과·경제손실

	경제효과	경제손실 (국내 관객 완전 수용시와의 차이)
1. 국내 관객 완전 수용	18,108	0
2. 국내 관객 절반 수용	17,374	-734
3. 국내 관객 1/4 수용	17,007	-1,101
4. 무관객	16,640	-1,468
5. 개최 중지	0	-18.018

출전) 노무라 종합연구소

□ **국내 관객 제한 조치에 의한 경제 손실의 경제에의 영향은 경미함**

- 2020년 명목 GDP 규모와 비교했을 때, 절반 수용의 경우 0.01%, 1/4 수용의 경우 0.02%, 무관객의 경우에도 0.02%에 불과함
- 개최 중지에 따른 경제손실은 0.33% 규모로, 경미하지는 않지만 경기의 방향성을 좌우할 정도는 아님

ㅇ 시산에 따르면 대회 개최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어 긴급사태 선언이 재발령될 경우 경제손실은 올림픽·패럴림픽이 중지됐을 경우보다 큼

- 제1회 긴급사태 선언에 의한 경제손실은 약 6.4조엔, 제2회 약 6.3조엔, 제3회는 약 3조엔으로 추산됨

ㅇ 경제효과 외에, 일본이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부활하고 있으며 세계가 코로나를 극복했다는 메시지를 도쿄로부터 세계로 발신하는 것과, 코로나에 맞춰 실현한 컴팩트한 대회를 유산으로 후세의 개최도시에게 남기는 것 등이 개최 의의가 될 수 있음

<원본 자료>

木内登英「東京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中止の経済損失1兆8千億円、無観客開催では損失1,470億円」」(2021.05)

https://www.nri.com/jp/knowledge/blog/lst/2021/fis/kiuchi/0525

三﨑冨査雄「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の延期開催に経済効果は期待できない」」(2021.01)

https://www.ssf.or.jp/ssf_eyes/history/olympic_legacy/29.html